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내면개혁을 위한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청지기훈련 메시지는 단순명료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우리 함께 회개한 죄인이 되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디모데전서 1:15)

1. 죄인

죄인은 곧 우리다(롬 3:9~10; 사 53:6). 구원의 대상은 선하고 의로운 자가 아닌, 죄인이다. 초교리파도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는 죄인이 아니다(사 1:18). 죄인의 범위는 선함과 조진 한 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유 1:23). 죄는 저주받은 것이다(골 2:2~3). 죄는 사명을 가져다 주고 죄가 나스리는 곳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죽어버린다(로마 7:22~24). 우리 안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이는 죄인의 실종이며,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숨결이고, 죄짐에 눌려 깊은 한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대일(2:12~13).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지금, 죄인들은 자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된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엢 2:13, 16, 19). 지금 주님은 죄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음성을 외치고 계신다.

2.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요 3:17~19). 구원은 우리의 수고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엢 4:10~12). 구원은 복음을 믿을 때 영원토록 주어진다(롬 19:9~10; 롬 8:1~2).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복음이다. 복음은 구원의 때와 어떤 계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요 5:6, 8). 예수님은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실령이 죄를 미워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하신다(롬 5:8~11). 그리스도께서 홀로 통치하실 때까지 믿은 안에서 살아야 한다(갈 2:20; 마 28:18~20). 구원받은 증거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3.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눅 1:31~33).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자다(마 1:20~23).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신 자다(사 9:6~7, 4:18~19). 죄인을 구원할 자는 결코 동정녀 마리아나 상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이다(1:1; 눅 2:14; 요 3:16).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히 1:2~3).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간직해야 한다.

4. 그의 행하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다(요 1:1~4, 10~11, 14). 주님은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이 세상에 거하셨다(눅 2:23).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것이었다(눅 23:44~47). 이 복된 영광스러운 복음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제물이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패다. 그리스도 사역 안에는 창조에도, 살리에도, 구원에도 실패는 없다(요 19:30). 구원받은 이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원한다(롬 10:12~13).

5. 영접

주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고백한 후 따르는 것이 경순이다(고전 15:31).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엢 3:17~19). 우리의 모든 선함과 공사를 나눌까 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다(롬 3:25~27). 예수께서 오늘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다. 이 진리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 맡기(요 1:14~15; 히 1:16).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님은 당신을 꼭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보혈의 은혜로 풍성한 성례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갈 3:27)하여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출발을 축하하는 2011년 제1차 학습세례식이 오는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에 갈릴리움에서 진행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고전 11:24~25)하는 2011년 제2차 성찬식이 다음 주일(3월 6일) 1~5부 예배 시에 있으니,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교회일정

6일(주) 2011년 제2차 영전예배(주일1~5부예배),
2011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9일(수) 대의 수요일, 사순절 특별배려기도회 실시

16일(수) 평가강좌(수요2부예배 후)

27일(주) 공동의와(주일4부예배 후)

LORD'S SUPPER & PASSOVER

(14) When the hour had come, He reclined at the table, and the apostles with Him.

(15)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

(16)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0)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uke 22:14~20)

Jesus told His disciples,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Lk. 22:15). Jesus really wanted to share this special supper with His disciples because He was going to use the occasion to make the Passover His own event. The rituals of Passover and the Lord's Supper share a common theme of eating and drinking. Even the subject matter of the offering of a lamb is similar. Passover required an unblemished male lamb, and the Lord's Supper requires the sinless Lamb of God, Jesus Christ. John the Baptist declared when He saw Jesus, "Behold, the Lamb of God!" (Jn. 1:36). Paul also stated, "For Christ our Passover also has been sacrificed" (1 Cor. 5:7). Most certainly Peter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Christ's unique sinless nature when he said,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1 Pet. 1:19). Jesus sat at the Passover dinner with His disciples before taking the cross and blessed them with the knowledge of God's salvation plan in Him.

In the Old Testament, the Jewish church had to slaughter a lamb for each household and place its blood around the frame of their home's entrance. Every congregation member was required to do this,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saying, 'On the tenth of this month they are each one to take a lamb for themselves, according to their fathers' households, a lamb for each household'" (Ex. 12:3). They were required to eat the lamb hurriedly, "Now you shall eat it in this manner: with your loins girded,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and you shall eat it in haste—it is the Lord's Passover" (Ex. 12:11). This special dinner was so important for their salvation, "The blood sha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live; and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no plague will befall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Ex. 12:13). God's judgment would befall all who did not apply the lamb's blood. This wonderful salvation was to be remembered, "When you enter the land which the Lord will give you, as He has promised, you shall observe this rite. And when your children say to you, 'What does this rite mean to you?' you shall say, 'It is a Passover sacrifice to the Lord who passed over the houses of the sons of Israel in Egypt when He smote the Egyptians, but spared our homes'" (Ex. 12:25~27). The Christian church now remembers the meaning of Christ's death, resurrection, and return as necessary for their salvation from eternal death to eternal life.

After God saved Israel, He required that along with Israel only

the circumcised may participate in the Passover meal, "but every man's slave purchased with money, after you have circumcised him, then he may eat of it. A sojourner or a hired servant shall not eat of it. It is to be eaten in a single house; you are not to bring forth any of the flesh outside of the house, nor are you to break any bone of it.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are to celebrate this. But if a stranger sojourns with you, and celebrates the Passover to the Lord, let all his males be circumcised, and then let him come near to celebrate it; and he shall be like a native of the land. But no uncircumcised person may eat of it. The same law shall apply to the native as to the stranger who sojourns among you" (Ex. 12:44~49). The Passover was a very important ritual that was observed three times a year (Deut. 16:16), and opened to those who wanted to worship the Lord God. After Christ's sacrificial death the Passover changed to the Lord's Supper, "for I say to you,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Lk. 22:16). Only those who have placed their faith in Christ may participate.

Jesus Christ implemented a new dinner, "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k. 22:19~20). So now, we take the bread and cup in remembrance of Jesus because He asks us to,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23~24). All God's people find salvation in Jesus Christ.

If you ask a Jewish believer what their most important religious day is, most will answer Passover because it was the day they were set free. Today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day is the Lord's Supper because it is something Jesus asked us to do. Not only that, whenever we eat and drink at the Lord's Table we proclaim His death,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 11:26).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Jesus is coming again. He's alive and going to return to take us home with Him so that we can have a great Passover meal in heaven. Are you excited? Please come now and join in the Lord's Supper. Amen. 

주의 만찬과 유월절

¹⁴“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¹⁵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 ¹⁹“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⁰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14~20)



김성관 목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눅 22:15)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때로 사용할 생각이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예식과 주의 만찬은 먹고 마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유월절은 무후한 솜양을 필요로 했고, 주의 만찬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36)라고 외쳤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전 5:7)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9)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하게 죄 없으신 성품의 중요성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각 집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출 12:3). 그들은 어린 양을 빨리 먹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출 12:11). 이 특별한 만찬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 12:13).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출 12:25~27). 오늘날 교회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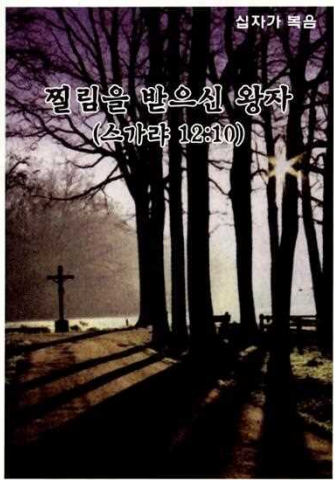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출 12:44~49).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로서 1년에 세 차례 지키었으며(신 16:16)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후에 유월절은 주의 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눅 22:16).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 만찬

예수 그리스도는 새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9~20).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명하셨기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 11:23~24).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대부분 유월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취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며 돌아오셔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사 천국에서 가장 멋진 유월절 식사를 주실 것입니다. 흥분되십니까? 지금 오셔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

수요1부예배 / 월요새벽기도회



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닌, 오직 주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바로 그 은총으로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 의해 절령을 받으신 왕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3:16, 19:37)를 보며 애똥하고 통곡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의 부요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똥하고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를 배척했었는가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의 왕자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늘의 왕자를 절렸던 것을 깨달았기에 애똥하고 통곡하게 된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애똥과 통곡이 있는가? 축복과 형통함을 원하는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갈망한다. 우리가 원하는 왕자는 축복을 주는 왕자이지 절령을 받는 왕자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가 스가랴 12장부터 시작된다. 열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숙 12:1~9)을 선언한 뒤에 스가랴 12장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숙 13:1)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똥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똥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숙 12:10).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절렸던 그를 바라보며 애똥하고 통곡하게 하셨다. "은총"은 우리의 노력으로

남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요 3:36).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롬 5:8~9). 그럼에도 우리는 배척한다(사 53:3).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매번 배척하는 분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시는 당신의 왕자다(사 9:6~7). 왕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

●자신들의 책임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책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애똥하고 통곡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후 시작된 성전 재건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였다. 어려운 시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용범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롬 5:1,8).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똥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죄인들이다(눅 19:41, 23:34).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만한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마저 세상 것으로 혼합하여 이용하려고 한다.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진정한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부요심을 받은 후에 애똥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진정한 회개를 거부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눈물은 회개의 마음을 밝혀 준다. 회개는 적당히 수준에서 고치고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며 걸어갔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이 회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고후 7:10).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막 1:4~5).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에서 외친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의 복음이었다(막 1:14~15).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

에덴동산과 세상과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에덴동산에는 공동묘지가 없다. 그러나 세상은 전체가 공동묘지이며, 그 위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는 사실이다(창 5장). 결국 우리는 영원한 공동묘지에 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절령을 받으신 왕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의 기회가 열렸다. 예수님이 대답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배척해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았던 모든 책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자. 지금 울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울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히 5:7) 진실로 애똥하며 통곡하자. 아담 속에 살고 있었기때문에 주님과 동행(창 5:24)할 수 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진노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67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없다면 절대로 세상을 담보로 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내내 매일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인 겟세마네에서도 슬픔과 고민 가운데 피맛 흘리며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이 도전하는 '시험'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다. 또한 이 시험은 종말적인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험의 심각성을 간과한다. 이것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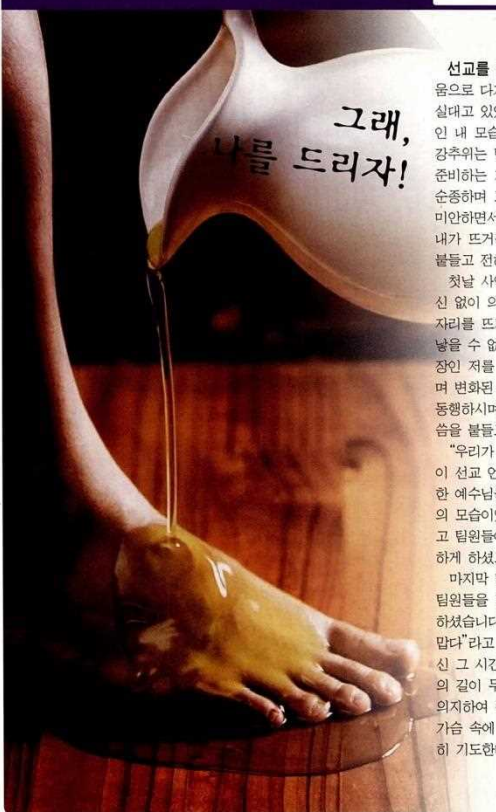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이 진실로 우리의 전부라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곧, 이 말 속에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로만 연약하고 겸손한 척할 뿐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다.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절대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실상이다(요 6:63). 영에 속하여 찢어 사라는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롬 8:9).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하신다(대상

28:21; 시 51:14; 롬 1:15).

예수님의 초점은 '고난의 잔'이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영광의 잔만을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대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막 10:38)라고 물으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잔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며, 자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막 10:39, 14:31). 그러나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마음은 원이로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매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막 14:33~34).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전부를 맡기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히 5: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막 3:27).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 이 강함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세상과 관계된 기도는 기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모두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가 아들이시면서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8). 사탄의 시험은 강력하다. 반면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연약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예수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눅 22:31~32). "매순간 삶이 기도가 되어, 복음 안에 거하여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망팔까지



선교를 준비하는 길은 너무나 춥고 두려운 시간이었다. 베트남 지역의 공안은 골리앗이 되어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전도지 없이 가야 하는 6성의 베트남 언어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되어 넘실대고 있었다. 순종한다고 팀 모임에는 참석하나 팀원들의 영적 상태는 겨울 추위만큼 냉랭했고, 팀장인 내 모습은 결코 정복되지 않는 팔레스타인이 되어 나를 누르고 있었다. 오후 10도 이하로 내려가서는 감추어둔 팀 모임을 하는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추위와 눈은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고,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은 모두에게 힘든 인내의 시간이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팀원들이 있었을 텐데도 순종하며 모인 팀원들이 모임을 마치고 밤늦게 바들바들 떨며 먼 길을 가는 뒷모습을 볼 땐 애처롭고 미안하면서도 가슴은 늘 무거웠다. 팀장으로서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 “그래, 나를 드리자!” 내가 뜨거운 불이 되어 찬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했다. 팀원들이 선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체험하고, 팀원들이 바르게 해 달라고 기도만 했다.

첫날 사역 후 팀원들은 실패한 선교를 고백하며, 마음이 위축되었다. 팀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확신 없이 의심하며 뒤에서 멈춰서고 있었다. “회개하자.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이 자리를 뜨지 마라. 베트남은 강한 지역이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에 너희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다”고 영적으로 확신 없이 가라앉아 잠자고 있는 팀원들을 깨우고 흔들어야 했다. “주님! 팀장인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자 팀원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회개하며 변화된 우리 팀은 하루하루 말씀을 알세우며 나아가고 있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내 앞에서 동행하시며 듣고 계신 것을 체험하자.” 아침 경건회 시간에 하루하루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눈 말씀을 붙들고 사역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체험하며 팀원들은 바르고 있었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체험하자.” 팀원들은 기쁨으로 전했고, 영무새 같이 선교 언어만 말하고 적당히 뒤에서 멈춰서며 시간만 때우려는 선교가 아닌 자신들이 만나고 확신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선교를 하고 있었다. 어려운 현지어를 제대로 한비조차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실거다. 여호와와 그의 귀를 알세우고 나아가자”고 팀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귀가 열려 복음의 언어가 그대로 전달되며 영접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하였고, 팀원들은 확신에 차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날 아침 기도할 때, 내가 선 자리에 내 모습과 내 형체가 없었거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어서 팀원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내 몸이 전제로 드리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팀원들에게 내 이름을 말해 주어 고마워, 십자가를 말해 주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곤 했다. 팀원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체험을 하게 하신 그 시간! 때로는 힘겹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 팀원들의 긴 삶의 여정에, 좁은 길을 체험하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 팀원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를 했던 그 시간, 그 자리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흔적과 유물집 어린 양의 피가 팀원들의 가슴 속에 흐르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 증언하는 믿음의 길 가किन을 간절히 기도한다.

정인선(선사, 대학부)

전도의 기쁨

전도에 대해 생각하니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 또 ‘내가 전도는 얼마나 했나?’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회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만 열심히 나가고 우리 가족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더구나 저는 말 주변이 없어 남들을 잘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끔 전도를 하더라도 자신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충원전도대 교육”을 받으며 어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할 때면 나보다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더 잘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저는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시간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직장도 밤에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덕분에 주일은 물론 수요일, 금요일에 있는 집회까지 다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휴가를 모아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삶으로 변화고 보니 그동안 직장을 핑계대어 단기선교를 꺼리고 교회주변 전도도 나가지 못하면서 가졌던, “난 직장 때문에 못 가. 난 못해”라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수요일에는 교회 주변으로, 화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 전철역 주변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좋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격려해 주는 말을 들으면 새 힘도 생깁니다.

1월에는 ‘맑은 양’이 있었던 막내 시누이를 권면하여 교회로 인도했고, 얼마 전에는 교회 근처에 있는 푸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했었기에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바울을 핑계대어 단기선교를 꺼리고 교회주변 전도도 나가지 못하면서 가졌던, “난 직장 때문에 못 가. 난 못해”라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수요일에는 교회 주변으로, 화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 전철역 주변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좋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격려해 주는 말을 들으면 새 힘도 생깁니다.

전순희(권사, 19교구)

그리스도의 빛

선교 현장은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한 영혼 영혼을 붙들고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지나친 마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은 “만일 우리의 복을 위하여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희를 선교현장, 이 땅에 오게 해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복음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 애환 해 하시며 공활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지적 상황으로 속이고 두려움을 주었지만, 주님은 열려를 물리치고 빛으로 선전 현장을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파송된 주님의 사자들을 깨닫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팀이 비추었던 마을마다, 가정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빛으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선교 현장에서 빛으로 다니며 어둠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갓난 아이에게, 젖먹이 엄마에게, 또 그 아들에게, 눈이 예쁜 소녀에게, 잘 생긴 청년에게, 젊은 이란 남자는 할머니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떠나왔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마을마다,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빛으로 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사역지를 떠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인혜(집사, 9교구)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8일(금) - 2월 25일(금)	중동부 2팀	김경은
2월 18일(금) - 2월 25일(금)	중동부 3팀	정혜진

이번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일(수) - 3월 10일(목)	11교구 1팀	이창호

성경이 열린다! 예수님을 만나다!

3월 1일!
2011년 겨울성경학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겨울성경학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먼저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께에 맞는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고 '용어 건너기'라는 놀이와 '전도 비행기 만들기', 그리고 재미있는 인형극 공연도 망 예정입니다. 또 영어와 악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쁜 초창장도 만들어 보 내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짜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적인 한 어머니께서 하나님과 아이의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궁금한 것을 질문 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용호(교사, 영어부)

- 교사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 다니엘의 구원을 가지고 인형극을 합니다. 4~5세 어린이들은 누구나 올 수 있으니,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열조를 바랍니다. 임미희(교사, 유아부)

-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 위에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식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 퍼즐 만들기, 전도 비행기 만들기, 천지창조 마신 하나님의 창조물 만들기, 용예바다 건너기 게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형극 등을 예요.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자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일꾼으로 양성될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아이들의 가슴 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김보혜(교사, 유치부)

- 모든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특히 교사들은 월례에 금식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성경과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껏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으로 열심이 준비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과 폭폭씩 참석해서 같은 기쁨을 누리요.

이희분(교사, 초등2부)

- 오전에는 초등1,2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초등2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임광진(부장, 초등2부)

성경학교는 이다!

- 성경학교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 성경학교는 무조건 오는 날이다.
- 성경학교는 말씀의 잔치이다.
- 성경학교는 실천이다.
- 성경학교는 주님이 알아 주시는 동화책이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청년1부가 하나되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매번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주님의 보혈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선곡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지루 불췌불췌 뛰어나오는 나의 노력과 지식들, 또 찬양을 준비하며 우리의 찬양이 신령한 예배와 진실된 고백에 초점이 맞춰지길 고민했지만 막상 삶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전생태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강박해서 급박 예수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지?' 하는 무거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가슴을 치며 때를待한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여전히 저희들의 연약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찬양할 수도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그 은혜로 매순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김민우(청년1부)



대학부 수련회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감

대학부는 매번 수련회를 갖기 몇 주 전부터 기도회를 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3주 전부터 시작하여 설이 있는 주는 제외하고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했다. 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도회에 갈 생각은커녕 수련회 기간 동안 다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다. 그런데 간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수련회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회로 내 마음과 발돋움을 이끄셨다. 모든 기도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도회에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수련회에 대한 소망은 커져갔다. 나의 마음속과 입술에서 찬양이 나왔다. "주와 같이 걷가는 것 즐거움 일 아니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책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심겨진 이 찬양을 하며 수련회를 기다렸다. 목사님께서는 수련회에 가기 전에 기도제목을 정해라고 하셨다. 나는 앞의 찬양의 가사가 기도제목이 되었고 이외에도 몇 가지 기도제목을 가져갔다. '죄에 죽고 그리스도께 살자' 기도회에 도착해 처음 드린 부름의 예배에서부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은혜를 주셨다.

수련회 기간의 모든 시간들이 무척 기다려졌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전에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했다. 집회 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죄에 매여 있던 것을 풀어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다. 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동안 기도하기 부당스러웠던 한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고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 받은 나는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 죄로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모이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들이 나의 목적인 최약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뵈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인해 매일 같은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기도했다. 그리고 선교를 소망하며 기도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수련회의 마지막 예배는 파송의 예배였다. 보통은 폐회에 배라고 했는데 이번 수련회는 파송의 예배로 드러났다. 그리고 파송예배를 통해 주님은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셨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기에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같이 걷는 놀라운 은혜의 소망! 좋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심재호(대학부)

신임 교역자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산전 3:2)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민복 목사
(1977. 2. 10)
이보미 사모와 1녀



최산민 목사
(1974. 11. 18)
백현주 사모와 1남 1녀



하계선 목사
(1973. 3. 16)
오재실 사모와 1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인교회와 안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681	김수민	초등1부	3		1702	함종민	양육반	10	함희자
1682	장진우	중등부	1	김근근	1703	이승주	양육반	4	이경진
1683	신규리	양육반	1	김근근	1704	이승주	양육반	4	이경진
1684	김수찬	양육반	18	김옥심	1705	오영주	양육반	3	오지은
1685	김은복	양육반	20	표복희	1706	김선진			6
1686	이미현	양육반	20	박종숙	1707	최현우	양육반	3	오지은
1687	김병욱	양육반	7	신호하	1708	전혜진	초등1부	17	송미영
1688	윤하인	양육반	16	왕윤민	1709	김병준	예배반	25	이철우
1689	박득운		11	이은지B	1710	전순관	초등부	6	조연이
1690	전진민	초등2부	13	강영희	1711	장지현	초등1부	14	
1691	전준기	대학부	7	김희은	1712	장천호			14
1692	정익조	양육반	3	이경은	1713	민정훈	예배반	25	박영진
1693	송정식	대학부	2	이명애	1714	송송리	양육반	19	김진영
1694	이종철	양육반	22	이인숙C	1715	김보성	대학부	4	이명숙
1695	정근배	예배반	25	김진민	1716	노경미	대학부	1	
1696	박진민	양육반	13	강영희	1717	이유미	양육반	8	윤복선
1697	박영순	양육반	5	김순홍	1718	이유미	양육반	13	오지은
1698	조종태	양육반	9	홍진숙	1719	조재선	양육반	3	김은숙
1699	김현주	양육반	20	김순걸	1720	이현주	양육반	10	박숙희
1700	박성숙	양육반	13	강태현	1721	김지선	예배반	25	송우리
1701	최성환	양육반	13	장일영					

역삼동에서

사르밧의 여인을 만나다

우리는 딱 한 끼 음식을 주께 드린 사르밧의 여인(왕상 17:9), 자신의 전부인 두 뿔을 주께 드린 한 여인(눅 21:2)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찬양대에 이 여인들과 같은 분이 있다고 한다. 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와 같은 결단을 한 것인지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연수이 한창인 예루살렘찬양대를 무작정 찾아갔다. '배상님' 권사님 어느 분이세요? "나의 인도자요 두 번의 물음 안에 권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한자로 '아이구, 나는 아무 것도 몰라. 잘하는 것은 없고'라며 손사래를 치시는 배상님 권사님(1교구)과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실제 만난 후에 연애가 어떻게 되셨나요? 여든 여섯이요.

예루살렘찬양대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2~3년쯤 된 것 같아요.

찬양대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찬양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으냐? 좋아요. 가사도 좋고, 찬양을 하는 것도 좋고, 너무 좋아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믿기는 오래 전부터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건 45세쯤인가 그럴 거예요.

권사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요.

가장 즐겨 부르는 곡은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다면? 찬양은 다 좋아요. 잘은 못해도 다 좋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가사에서처럼 나 같은 죄인을 아끼도록 살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마음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일어나서 새벽기도회를 갔다가 꼭 말씀 한 장식을 읽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렇게 한 마디 속이 허전하고 이상하다고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 그런가 봐요.

새벽기도회를 포함해서 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다고 들었어요.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서 마음을 들 때는 정신 차리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도 예배를 배운다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말씀 모든 그 시간을 배운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금방 잊어도 가서 꼭 마음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요. 말씀을 안 들으면 영이 쏘려져요.

영성이 모은 것 재산을 다 헌금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르밧 여인과 두 뿔을 헌금한 여인이 생겼는데요, 잘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단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주세요. 욕심 드린 후에 조금 결단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이구,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그분들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많이 드리지도 못했는데요. 그냥 기왕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니 마찬가지니까 드린 거죠. 안 드리면 마음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드린 거예요. 내거라고 생각했으면 못 드렸을 거예요. 드리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 또한 '돈, 명예, 권력'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은데요, 권사님에게 있어서 '돈, 명예, 권력'은 무엇인가요? 별 생각 없어요. 생각도 안 하고요. 별로 매력도 없어요.

말씀의 선행으로 후배들에게 매 주 교회는 많이 있다면? 내가 출제 있으면 다 주고 싶는데 출제 없어서 참 아쉬워요. 매우 잘 믿는 청년들 보면 얼마나 애매요. 받들고 싶는데 아무 것도 없어서 그저 마음뿐이에요.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이에요.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마음에 전달된 것은 '순서' 그 자체였다. '나는 없는 순수함 그 자체. 그 어디에서도 꾸미진 자라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만 있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찬양을 하자면 어찌 내 것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께 드리지! 영성과 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최재·연희자 기자

2월 총현 기도의 창

- 1)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35)이
수 있도록 주의 사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2) 교화에 등한한 새가톨릭의 진리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받은 수 십가구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
토로 사하여 주시고, 영혼의 건강함을 주소서.
- 4) 십가구의 보혈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골 4:24)를 위하여 미
준비(요 6:27) 전 매달 착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
는(요 5:24)을 베푸소서.

2011년 진학기 교육훈련비		인생 / 교육과학기술교육진흥부, 제4년 4차	
연간 계획금액	월시 : 3월 6월 9월 이후 300	장소 : 제1교육원 307호	대상 : 수험생 전원 포함
수험생명수	교육기간 : 3월 - 6월 - 9월 - 10월 - 12월		
오전반 230 ~ 400	교육기간 : 내내바우 그리스도회 (교육관 307호)		
	매주 월요일 내내바우 그리스도회 (교육관 307호)		
	매주 화요일 내내바우 그리스도회 (교육관 307호)		
	매주 목요일 내내바우 그리스도회 (교육관 307호)		
후반반 800 ~ 930	시도연계 내내바우 그리스도회 (제1교육원 307호)		
교육기 담당부	교육기간 : 3월 - 6월 - 9월 - 12월 (2개년)		
연계담당부 담당부	교육기간 : 3월 - 6월 - 9월 - 12월 (2개년)		
연계담당부 훈련비	교육기간 : 3월 - 6월 - 9월 - 12월 (10개년)		
	장소 : 제1교육원 307호, 매주일 이후 300 ~ 430		
	대상 : 수험생, 매 주요일 이후 300 ~ 430		
	장소 : 제1교육원 307호, 매 주요일 이후 100 ~ 200		

월	일	주요일제 (경로)					친양애배 (한수집사)	수요애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3	6	원운철	이보신	이세영	엄복집	김환기	변창대	김영숙	송행자
	13	전홍윤	김영달	최세진	문효식	최유진	이인용	김영희	민순기
	20	이 훈	김연태	김종호	정철길	지규성	유종석	김숙자	김주자
	27	김태식	고계승	이길호	전계식	조종민	신명환	이흥식	박나을

이	이	자	사	보	사	이	이
---	---	---	---	---	---	---	---

구분	발차	경로	발차	경로	
청년1부	2월 28일(화)~3월 1일(화)	충천기도원	초등1부	3월 1일(화)	제1교육관 407호
영아부	3월 1일(화)	제1교육관 110호	초등2부	3월 1일(화)	제1교육관 507호
유아부	3월 1일(화)	제1교육관 201호	청년2부	3월 1일(화)	제2교육관 2층
유아보	3월 1일(화)	제1교육관 207호			

	2/28 (월)	3/1 (화)	3/2 (수)	3/3 (목)	3/4 (금)	3/5 (토)	3/6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권명옥	안치원/김현철	양재웅/박승산	유재진/변인식	유현철/송영삼	박용현/김정운	강호성/강옥련
성 교 본 부	메시야의 줄을	말 4:30-41	말 5:1-20	말 5:21-34	말 5:35-43	말 6:1-6	말 6:7-13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인구(백만 명)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비서(딤후 2:1-13) 이광희 목사	하형욱	임태수	오유하 주님의 음성(홍사나, 좌양대, 오케스트라)

3/2	수요 II	사는 것, 죽는 것(빌 1:21) 나귀대 목사	박효은	주영재	안희정	남 대축신사 예수교회(실로암 찬양대)
3/4	금요일	양재울	안희정	예배성령 찬양대 - 오케스트라 / 중후부 앙상블 / 소프라노 류순연		
	주요 III	주의 만민과 유월절(눅 22:14-20) 하학목 목사	김종훈	원용철		(예배 찬양)
	주요 II	주의 만민과 유월절(눅 22:14-20) 나귀대 목사	이보연	이보연	강보리나 휘예 / 소프라노 김혜영(예배성령 찬양대 지휘)	
	주요 III	주의 만민과 유월절(눅 22:14-20) 김진관 목사	유재현	이재민	나 같은 외진 살리니 / 김대현(나눔)	
3/6	주요 IV	주의 만민과 유월절(눅 22:14-20) 탁영진 목사	강효성	염복식	주말예 성찬 받기 위하여 / 첼로 이희화(원불교 오케스트라)	
	주요 V	주의 만민과 유월절(눅 22:14-20) 김경숙 목사	김경숙	김진관	내 주님 지신 지사가 / 바이올린 김진관(원불교 오케스트라)	
	주일일	사랑은 순례하는 것(요 15:1-10) 김성관 목사	박지훈	민정화	소망부 / 그루	

기도원전히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장소		
주요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사용동행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주일잔잔예배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당			
주요예배			오후 5:00	본당		
교묘잔잔예배			1. 오전 11:00 2. 저녁 7:00	본당		
주요잔잔예배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송학천 유치원	신광천 유치원	신안초 유치원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장년 1부	오후 12:15	제1교육관 507호	악기반 악기반	악기반 악기반	악기반 악기반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유성반	유성반	유성반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이계인 재활반	이계인 재활반	이계인 재활반
초등 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장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이상배 재활반	이상배 재활반	이상배 재활반
초등 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소말부	오후 12:15	갈 밀리 홀	이태식 11교구	이태식 11교구	이태식 11교구
중등부	오전 10:30	갈 밀리 홀	사 말 부	오후 11:00	복지관 지하1층	임정자 재활반	임정자 재활반	임정자 재활반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예배다부	오전 9:00(재활) 오전 12:40(성인)	제2교육관 1층	정계식 재활반	정계식 재활반	정계식 재활반
대학부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탁아부	(주)오전 8:30-8:40(60) (수)오전 10:30-12:00 (금)저녁 6:40-7:00	선교관 1층	정철호 재활반	정철호 재활반	정철호 재활반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제가족교육부	오전 12:10	배 다 니 홀	지규상 재활반	지규상 재활반	지규상 재활반
			국회헌법연수교부	오전 11:00	아 멘	최한식 재활반	최한식 재활반	최한식 재활반
			영유아중등교실	오전 8:30-오전 11:30	제1교육관 7층	함철주	함철주	함철주

기 · 능 · 부 · 들

■ 위임몰사 김성관

[illegible]